

내일 전북청소년영화제 개막

‘아이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

22일까지 총 35편 선보여
개막작 ‘오월동주’ 등 상영

제14회 전북청소년영화제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사흘 간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열린다.

전북청소년영화제는 도내 청소년과 교사들이 함께 만드는 영화 축제로, 청소년들이 영화를 통해 미래를 생각하며 꿈을 키우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담아 내는 소통의 장이다.

개막식은 19일 오후 6시 30분이며, 개막작은 하소정 감독의 ‘빨간실’, 노혜민 감독의

‘오월동주’가 상영될 예정이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3일간 총 35편의 영화가 소개된다. 개막작 2편과 경쟁부문 24편,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수상작 1편, 제3회 가족영화제 수상작 1편, 2019 전북청소년영화제 작품 5편, 제2회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 수상작 1편,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작품 1편 등을 초청해 상영한다.

경쟁작은 초등학교생 작품 16편, 중학생 3편, 고등학생 5편을 7~9작품씩 올림버스로 상영하고,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관객심사단이 초·중·고 작품 각 1편 등 총 3편을 우수작으로 선정한다.

특히 지역 청소년들로 구성된 자원활동가 11명, 관객심사단 14명은 성공적인 영화제를

위해 오리엔테이션 후 개·폐막 사회와 관객과의 대화(GV)도 준비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많이 나왔다. 이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느끼고 있는지 공감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영화관람 후 관객과의 대화(GV)를 통해 지역 청소년들과 의미있는 소통의 자리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영화제는 전북도교육청에서 주최하고 전북영상교육연구회·전주교육지원청이 주관하며 전주국제영화제·무주산골영화제·전주영상위원회·전북독립영화협회·전북가족영화제·전주시민미디어센터 영시미에서 후원한다. /장은성 기자

코로나19라는 성난 바다에서 시민들과 따뜻한 체온 나누며

근대역사박물관 시민열린갤러리서 ‘군산이 꿈꾸는 섬’ 전시
고군산열도의 섬·근현대사의 아픔 등 캘리그래피로 표현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오는 12월 13일까지 박물관 1층 시민열린갤러리에서 ‘군산이 꿈꾸는 섬’이라는 주제로 캘리그래피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시에는 군산의 캘리그래피 작가 민하 박명희를 중심으로 한국캘리그래피협회 회원들 17명이 참여했으며, 각각의 작가들은 군산과 고군산열도의 섬, 군산이 가지고 있는 근현대사의 아픔 등에 대해 감성적인 문구와 개성있는 필체가 돋보이는 캘리그래피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전시에 참여한 한국캘리그래피협회장 일연(一淵) 유현덕 작가는 코로나19라는 성난 바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군산에서 잃어버린 섬을 발견하고 시민들과 따뜻한 체온을 나누는 캘리그래피가 되고자 하는 의도로 전시를 준비했다고 한다.

군산의 캘리그래피 작가 민하 박명희는 군산을 배경으로 캘리그래피 작가들의 감성글을 먹물 이용한 다양한 한글체로 표현해 관람객들이 군산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에서 전시를 기획했다. ‘군산이 꿈꾸는 섬’ 전시를 통해 우리 한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근대역사박물관 시민열린갤러리는 시민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군산시의 문화예술 경쟁력을 높이고자 마련된 공간으로 매년 군산 시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전시 참여자를 공개 모집하고 선정된 전시 참여자에게는 리플렛, 포스터 등 전시 홍보물 제작 지원을 하고 있다.

박물관관리과 관계자는 “박물관 시민열린갤러리에서 다양한 장르의 전시 개최를 통해 관람객들과 군산시민들에게 문화체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0년 박물관 시민열린갤러리 전시는 설치미술, 공예, 사진, 그림책 특별전, 수채화에 이어 캘리그래피 전시를 준비하게 되었으며 12월중 2021년도 시민열린갤러리 전시 참여자 공개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남현봉 기자

공공디자인 역량 강화... 남원 도시디자인 아카데미

“일상에서 체감되는 디자인
1차 목표로 진흥계획 수립을”
우수사례 통한 개선방향도 제시

남원시가 공무원 90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과 13일 2회 공공디자인 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디자인 아카데미를 남원예촌 사랑마루에서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남원시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반면, 공공분야에 필요한 디자인 기법과 공공디자인 진흥방향의 이해에 대한 교육이 미비해 추진되었다.

교육에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한국공공디자인학회 최성호 교수와 강성중 연구소장, 다다어소시에이츠 이재승 차장이 교육을 진행했으며, 교육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오전에 진행된 교육은 ‘공공디자인 정책과 진흥방향’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낮은 디자인 교육 수준에서 비롯된 도시의 문화적 맥락 대한 고려가 없는 버스 정류장,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가로 판매시설 등의 디자인적 문제점을 제기하며, 일상에서 체감되는 디자인을 1차 목표로 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남원시가 공무원 90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과 13일 2회 공공디자인 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디자인 아카데미를 남원예촌 사랑마루에서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오후 교육에서는 공공디자인과 지역발전과 공공디자인 우수사례 및 벤치마킹으로, 도시에 적용되는 디자인의 기능, 주민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등 지역발전을 위한 디자인과 공공디자인 우수사례를 통한 도시의 개선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한편 남원시에서는 앞으로도 공공디자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시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여성가족 친화도시 발전방안 과제 모색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토론회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소장 이수인)는 18일 익산시 예술의 전당에서 ‘익산시 여성가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찾아가는 여성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여성정책 토론회는 여성정책연구소가 각 시·군을 순회하며, 해당 지자체의 여성정책 현안과 정책수요를 점검하고, 지역 여성정책 지원책 마련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거버넌스를 통해 정책추진을 제안하는 행사다.

이번에는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앞둔 익산시를 대상으로 여성정책연구소, 시민서포터즈, 여성단체, 익산시 의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모여 지난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여성가족친화도시 추진 및 발전방향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이어 나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될 수 있는 지역 여성정책추진 전략과 일·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 친

화적인 환경조성 방안,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강화 방안 등에 관한 발전적인 정책들이 제안됐다. /유호상 기자

‘아동을 위한 클래식’ 무료공연

군산시는 코로나19로 지친 아동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클래식 및 마술 기획공연’을 오는 28일과 오는 12월 12일 군산어린이공연장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감미롭고 익숙한 클래식 연주와 다채로운 마술공연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에 힘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클래식 공연은 군산시립교향악단 악장 ‘보냐현 알렉산드로’ 외 단원들의 재능기부로 진행될 예정이며, 연주곡들도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 등 관객들에게 친숙한 7개의 곡이 연주될 예정이다. 특히 공연 후반부에는 재미있고 역동적인 마술공연이 예정돼 있다. /군산=남현봉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마스크 착용 '필수' ·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